



독일 분데스리가 2014~2015시즌이 23일(한국시간) 바이에른 뮌헨-볼프스부르크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10개월여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레버쿠젠 손흥민(왼쪽 3번째)의 활약 여부는 국내 축구팬들에게 최대 관심사다. 사진제공 | LG전자

# 뮌헨·도르트문트 2강... 손흥민의 레버쿠젠 다크호스

## 분데스리가 2014~2015시즌 23일 개막

크로스·만주키치 이적에도 뮌헨은 최강 전력 명장 클루프 이끄는 도르트문트 영원한 우승후보 레버쿠젠, 잘하노글루·드리미치 영입 전력 업그레이드 구자철 박주호·호펜하임 김진수도 주목



뮌헨 감독인 루디 클로프

세계축구의 대세로 자리 잡은 독일 분데스리가의 2014~2015시즌이 23일(한국시간) 디펜딩 챔피언 바이에른 뮌헨과 볼프스부르크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10개월여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2014브라질월드컵은 독일축구가 왜 강한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무대였다. 4강전에서 홈팀 브라질을 완파한 데 이어 결승에선 아르헨티나마저 꺾어 남미축구의 양대 산맥을 모조리 제압했다. 이에 따라 새 시즌을 맞은 분데스리가를 향한 전 세계 축구팬들의 기대감은 더욱 높아졌다. 과거에 비해 태극전사들도 크게 늘어 우리 입장에서 보는 재미가 더욱 쏠쏠해졌다. 올 시즌 분데스리가를 조망해본다.

## ●우승 후보는?

분데스리가를 떠올리면 역시 바이에른 뮌헨이다. 여전히 우승 전력이다. 오히려 더 강해졌다. 톨니 크로스과 마리오 만주키치를 각각 레알 마드리드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이상 스페인)로 떠나보냈지만, 도르트문트에서 맹위를 떨친 로베르트 레만도프스키를 영입해 최강 공격력을 갖췄다. 물론 여기에 만족할 리 없다. 스페인국가대표 출신 수문장 페페 레이나나도 데려왔다. 부상 중인 티아고 알칸타라와 프랑크 리베리 등의 복귀까지 고려하면 전 포지션에 걸쳐 완벽해졌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우승 후보를 한 팀으로만 단정할 순 없다. 14일 열린 독일 슈퍼컵의 주인공은 도르트문트였다. 바이에른 뮌헨을 2-0으로 꺾고 삼국하에 출발했다. 직전 시즌 정구리그와 DFB 포칼(독일 FA

## ●독일 분데스리가 2014~2015시즌 1라운드 일정 (한국시간)

일시	홈팀	원정팀
23일 03:30	바이에른 뮌헨	볼프스부르크
23일 22:30	호펜하임	아우크스부르크
	헤르타 베를린	베르더 브레멘
	*빌름	함부르크
	하노버	살게
	프랑크푸르트	프라이부르크
24일 01:30	도르트문트	레버쿠젠
24일 22:30	*파더보른	마인츠
25일 00:30	뮌헨글라드바흐	슈투트가르트

\*한국선수 소속팀은 호펜하임(김진수), 아우크스부르크(홍정호), 도르트문트(지동원), 레버쿠젠(손흥민), 마인츠(구자철 박주호), \*는 승격팀

컵)을 제패한 팀들이 새 시즌을 앞두고 맞붙는 슈퍼컵은 이벤트 성격이 강하지만, 양 팀은 양측에 가까운 관계라 관심이 대단했다. 상대적으로 약한 자급력 탓에 주력들을 줄줄이 바이에른 뮌헨에 빼앗겨온 도르트문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르트문트가 늘 상위권을 유지하는 것은 '괴짜'

위르겐 클롭 감독의 지도력 덕분이다. 다소 놀라웠던 지동원의 영입을 제외하면 아드리안 라모스, 마티아스 긴터 등 나름 전력보강도 충실했다. 바이에른 뮌헨과 도르트문트의 아성에 도전장을 내밀 만한 팀은 레버쿠젠이다. 여름 내내 자금력이 허용하는 선에서 전력보강에 심혈을 기울였다. 엠레 칸, 시드니 샘 등을 떠나보냈지만 하칸 잘하노글루, 요십 드리미치, 키리코스 파파도풀로스 등을 데려왔다. 여기에 팀의 주축으로 자리매김한 손흥민도 견제하다. '막강'이라는 표현은 조금 어색해도 충분히 희망을 품어볼 수 있는 성과였다.

## ●6인의 태극전사들은?

과거 유럽축구의 한국선수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언급되는 곳이 잉글랜드였다. 그러나 기류가 많이 바뀌었다. 이제는 분데스리가가 국내팬들에게 가장 익숙한 무대다. 무려 6명의 태극전사들이 활약하다. 그 중에서도 손흥민(레버쿠젠)을 빼놓을 수 없다. 함부르크와 현 소속팀을 오가며 5골이나 뽑아냈던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24일 원정 개막

전을 치른다. DFB 포칼과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까지 올 시즌 개막 후 공식 2경기에서 연속골을 터트린 만큼 개막전에서도 손흥민의 골을 기대해볼 만하다. 손흥민은 3시즌 연속 정구리그 두 자릿수 골에도 도전한다. 마인츠에는 한국인 폼비가 있다. 구자철과 박주호다. 공수를 오가며 신뢰를 쌓은 둘은 입지감치 주전을 보장받았다. 24일 파더보른 원정으로 새 시즌을 맞는다. 중원에서 함께 호흡을 맞출 구자철-박주호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기다. 마인츠는 유로파리그와 DFB 포칼에서 모두 탈락해 정구리그에만 '올인'할 수밖에 없다.

유럽 진출 첫 시즌을 맞은 국가대표 왼쪽 풀백 김진수(호펜하임)의 분데스리가 안착 여부도 관심사다. 호펜하임은 아우크스부르크와 23일 홈에서 개막전을 치른다. 그러나 중앙수비수 홍정호(아우크스부르크)와 공격수 지동원(도르트문트)은 시즌 개막을 앞두고 부상을 당해 아쉽다. 홍정호는 왼 발등 부상, 지동원은 허벅지 근육 부상으로 개막전 출전이 어려워졌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트위터 @yoshike3

## 전북 살아난 닥공, 서울이 잠재울 수 있을까?

전북 10경기 7승 3무...24골 무서운 득점형전 수비안정 서울, 27일 2차전 부담 변수 8위~12위 승점 3점차...하위권 순위경쟁 치열



최강희감독 최용수감독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2014' 22라운드 6경기가 23일과 24일 열린다. 독주체제를 갖춘 1위 전북현대(13승5무3패·승점 44)는 만만치 않은 FC서울(7승7무7패·승점 28)과 23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홈경기를 치른다. 하위권에서 치열한 다투를 벌이는 8~12위 5팀은 일제히 상위권 팀과 격돌한다. 승점 1 이상을 위해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 ●전북VS서울

K리그를 대표하는 클럽간의 대결이다. 올 시즌 상대전적은 1무. 선두 전북은 최근 10경기에서 4연승을 포함해 7승3무의 고공비행을 거듭

하고 있다. 이동국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닥공(닥치고 공격)'이 되살아났다. 10경기에서 24골을 뽑아내 경기당 2.4득점이다. 7위 서울은 최근 10경기에서 5승4무1패를 거뒀다. 스티브 맥케이 감독이 이끄는 팀은 공격력이다. 서울은 FA컵과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까지 포함해 8월에만 총 9경기를 치르는 중이다. 20일 포항과의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 원정경기를 마친 뒤 경주에 베이스캠프를 차리고 전주 원정에 대비하고 있다.

변수는 서울의 선수구성이다. 서울은 전북전에 전력을 다하면 27일 예정된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이 부담스러워진다. 서울 최용수 감독의 선력이 주목된다.

## ●선두권 못지않은 하위권 순위경쟁

하위권 경쟁도 치열하다. 8위 상주상무(4승9무8패·승점 21)부터 12위 경남FC(3승9무9패·승점 18)까지 승점차가 3점에 불과하다. 매 라운드 경기 결과에 따라 순위가 오락가락할 전망이다. 22라운드에선 8~12위의 하위권 5팀이 모두 상위권 팀을 상대한다. 23일 경남은 포항(2위), 상주는 울산현대(6위)와 만난다. 24일에는 인천(9위), 성남(11위), 부산(10위)이 각각 제주(4위), 수원삼성(3위), 전남(5위)과 맞붙는다. 승리로 승점 3점을 확보하면 향후 순위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무승부로 승점 1점만 챙겨도 큰 손혜는 아니다. 하위권팀 중 이번 라운드에서 승점 3점을 거머쥐는 팀이 나올까

최용석 기자 glyong@donga.com 트위터 @glyong11

## "돌아다니는 개"...맥케이 감독, 김보경 인종차별 논란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은 21일(한국시간) 2013~2014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카디프 시티에서 중도 퇴진한 말기 맥케이(42·사진) 감독의 '문자메시지 스킴들'을 보도했다. 맥케이 감독이 이끈 무디 단장(현 크리스탈팰리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은 인종차별 내용을 담고 있어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이 가운데는 김보경(25·카디프시티)에 대한 언급도 포함돼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트위터 @stopwook15

맥케이 감독은 2012년 7월 김보경과의 계약 소식을 듣고 'Fkn chinky'라는 문자를 보냈다. 'chinky'는 눈이 찢어졌다는 의미로 영미권에선 동양인을 비하할 때 사용하는 은어다. 또 김보경에 대해 '카디프에 돌아다니는 개는 충분히 많다(There's enough dogs in Cardiff for us all to go aro

und)'라며 비하했다. 맥케이 감독은 김보경뿐 아니라 구단의 한 여직원에게 '저런 몸매로 어떻게 사느냐'는 문자를 보내는 등 성차별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맥케이 감독은 빈센트 탄 구단주의 압박을 이겨 내지 못해 퇴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팬들은 그동안 맥케이 감독을 내친 탄 구단주에 대해 부정적 시선을 보내왔다. 그러나 이번 일로 전세는 역전됐다. 맥케이 감독은 이번 사건으로 적잖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영국축구협회(FA)는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대책회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 북한, U-20 여자월드컵 결승진출 좌절

북한이 21일(한국시간) 캐나다 명크턴 스타디움에서 열린 나이지리아와의 2014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여자월드컵 4강전에서 2-6으로 대패해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북한은 리은심(전반 31분)과 조소연(후반 17분)이 득점에 성공했지만, 체력과 집중력 저하로 내리 실점하며 무너졌다. 북한은 25일 프랑스와 3-4위 결정전을 치른다.

## 분데스리가 공식 홈페이지 손흥민 인터뷰 게재

독일 분데스리가 사무국이 21일(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첫 골을 터트린 손흥민(레버쿠젠)의 인터뷰를 게재하며 각별한 관심을 드러냈다. 레버쿠젠은 20일 열린 FC로젠하겐(덴마크)과의 대회 플레이오프(PO) 1차전 원정경기에서 2-2로 맞선 전반 42분 터진 손흥민의 결승골로 3-2 승리를 챙겼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트위터 @simss23

## 차기감독 자격? "한국축구 어떻게 바꾸고 싶은가"

## ■정훈채의 사커 에세이

대한축구협회와 베르트 판 마르바이크 감독의 협상이 결렬됐다든 소식을 듣고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아, 아놈의 설레발 때문에 일을 그르쳤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조용히 결과를 기다렸으면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났을 텐데, 알맹이도 없는 얘기를 선블리 꺼냈다가 기대만 부풀린 꼴이 돼버렸으니까요. 지난주 칼럼을 읽으신 독자 여러분께 먼저 사과를 드려야겠습니다.

협상 실패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연봉과 가족, 두 가지 중에서 저는 후자가 더 주목할 만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고액 연봉에 따른 중과세 문제와 협회의 통 큰 '배려'를 기대한 감독의 욕심 때문에 협상이 진행되지 못했다고 하지만, 유럽에 체류하면서 대표팀을 구성한다는 건 잘못된 생각이 아닙니다.

해외와 위주로 구성된 지난 월드컵대표팀을 돌아보면 그랬습니다. 현지에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외국인 코치가 따로 고용됐고, 감독 또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유럽에 나가 주요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을 면담하고 컨디션을 체크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법으로는 준비가 덜 된 선수들을 걸러낼 수 없었고, 결국 그런 선수들은 본선 무대에서 기대했던 것만큼 활약해주지 못했습니다.

물론, 유럽에 상주하는 감독이 대표팀을 관리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평가전의 질만 이상이 국내에서 열리는 데 소집기간에는 여쭙 수 없이 입국해야 하는 데다, K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도 챙겨야 하니까요. 감독이 외국에 있다고 해서 해외파를 편애하는 게 아니고, 한국에 있다고 해서 국내파만 챙기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해외파와 국내파의 분리는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기보다 이제는 인정하고 극복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두 그룹을 동시에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사령탑을 이원화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일단 9월에 열리는 친선경기들은 신대용 코치 체제로 치러진다고 합니다. 누가 지휘봉을 잡든지

간에 국내 지도자가 자국 선수들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외국인 지도자가 해외의 각국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을 가깝게 거리에서 지켜볼 수 있는 건 명분한 사실입니다.

판 마르바이크 감독이 원하던 게 무엇이었던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많습니다. 한국축구의 무너진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라면,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포기하고 자신이 가진 걸 모두 쏟아 부을 각오가 되어있는, 헌신적이고도 경험 많은 백전노장이 필요합니다. 대표팀을 재구성하면서 유소년 체제를 재정비하고 국내 지도자를 육성하는 데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다재다능하고도 열정적인 축구전문가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외국인 감독은 가족에 충실하면서도 회사(클럽)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동시에 새로운 국가(대표팀)에 충성을 맹세해야 합니다. 면접을 보는 감독이 어느 쪽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 협상의 구도가 달라질겠지만, 판 마르바이크 감독이 보여줬던 것처럼 명분보다는 실리를 따지는 게 요즘의 추세입니다. 앞으로도 강력한 지도자, 훌륭한 교육자, 또는 축구의 선구자로서 갖춰야 할 덕목을 모두 가진 후보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와서 자격요건을 완화할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놓고 사람을 구하는 건 어떨까요? 제가 만약 면접관이라면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한국축구를 어떻게 바꾸고 싶습니까?"

## ●정훈채는?

FIFA.COM 에디터. 2002한일월드컵에서 서울월드컵경기장 관중 안내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면서 축구와 깊은 인연을 맺기 시작했다. 이후 UEFA.COM 에디터를 거치며 축구를 종교처럼 생각하고 있다. 2014브라질월드컵에는 월드컵 주관방송사인 HBS의 일원으로 참가했다. 국제축구의 핵심조직 에디터로 활동하며 세계축구의 흐름을 꿰고 있다.